

벤처 CEO들로부터 배우는 경영과 삶의 교훈

글_ 장덕진_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몇 달 동안 벤처기업의 정체성과 혁신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벤처 CEO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배운 기업경영과 삶의 교훈들은 연구결과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이었다. 이 지면을 빌어 벤처인들과 꼭 나누고 싶은 주옥 같은 명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벤처 CEO들은 기업이 '잘 죽을 수 있는' 환경을 절실히 원하고 있었다. 한계기업이 퇴출하지 않고 생존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서는 시장의 선택 기능이 마비되고 우량 기업도 함께 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벤처는 불패가 아니라 필패여야 한다' '죽은 사람이 분 바른다고 안 예뻐진다' '실패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는 표현들이 나왔다.

'벤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CEO들은 할 말이 많았다. '벤처는 총알 한 방 밖에 없는 권총이다' '좋은 거 놓치는 건 괜찮지만 나쁜 거에 물리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이와 관련되어 있다. 기업이라는 전쟁터, 그 중에서도 제한된 자원만을 가지고 성공의 기회를 모색하는 벤처기업은 오히려 지극히 위험회피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술력만 믿고 시장을 볼 줄 모르는 벤처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창호가 비독 기술 특허 내는 것 본 적 있는가' 'Best Product 가 Best Seller는 아니다' '전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기술은 필요 없는 기술일 가능성이 많다' 는 등의 지적은 지식집약적인 벤처 경영자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고언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벤처란 무엇이며, 벤처의 사회적 기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CEO들은 '벤처는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혁신과 지식에 의한 성장을 하는 기업' 이라고 정의했다. 반면 '붕어빵을 잉어모양으로 만드는 것' 이나 '지식한테 물려주는 것' 은 벤처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벤처기업은 경제위기라는 가장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서 무서운 속도로 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한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경제에는 항상 순환주기가 있는 법이다. 이제 천장도 바닥도 모두 보았으니 1라운드의 성과와 실패를 교훈 삼아 더 나은 2라운드를 시작해야 할 때다. 앞서 소개한 생생한 경험담들이 2라운드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